

사람과 사람사이



약용작물 파종준비

■ 정형모 부회장은 본격적인 약용작물 파종기를 맞은 요즘 산하 생산농민 회원들과 전망있는 약초종류와 재배법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협회 생산자 조직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만추당귀 육묘 생산

■ 김성배 경기도 지부장은 지난달 초부터 농진청 작물시험장에서 개발한 내추대성 '만추당귀' 종자 1kg을 가져다 이종하우



스 안에 트레이육묘를 생산중이다.

부음

■ 김원복 삼척시 사무소장 모친이 3월13일 노환으로 별세 ■ 정준순 동대문 공판장장이 지난 2월10일 심장마비로 별세 ■ 이한승 제천시 사무소장 부친이 2월11일 노환으로 별세

인사

[면직]

△동대문구 공판장장 정준순(99.2.23일부 사망) △경기도 하남시 공판장장 오공선(99.3.8일부) △부산 연제구 사무소장 김덕권(99.3.31일부)

[임명]



△김해봉 경기도하남시 공판장장 (99.3.8일부)



△김현만 충남서천군 사무소장 (99.2.20일부)



△변점십 경남진주시 동부출장소장 (99.3.19일부)



△박광웅 청주시 흥덕구 공판장장에서 보은군 공판장장으로 명의 변경 (99.3.31일부)



△장보원 마산시 합포구 사무소장에서 합포구 공판장장으로 명의 변경 (99.1.20일부)



△한대성 부산 서구 공판장장 (99.3.31일부)

신간안내

'이 땅의 토박이 동식물, 토종'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바꾼다'라는 말이 실감나듯 세계가 자원 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때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동식물의 자원 가치와 중요성을 다룬 '이 땅의 토박이 동식물, 토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토종가축과 식량작물·채소·과일·약초·염료식물, 우리의 꽃과 나무·버섯 등 경쟁력 높은 주요 동식물 자원의 유래 및 상품화 방안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김용덕 지음 '농민신문사' 1만1천원)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종자'

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인 안완식 박사가 쓰고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종

자"는 토종종자의 보존과 개발, 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책을 통해 우리의 재래종이나 야생종의 유전인자를 이용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신종 개발만이 치열해져가는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각 작물에 대한 학명, 도입연대와 경로, 용도, 성분 등 학문적 성과를 종합해 두었고, 본문 내용에 속속속히 생활 속의 민간요법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들어 먹거나 약으로 쓸 수 있는 토종식물의 이용법을 소개했다. 각 작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0여장의 컬러 사진을 첨가하여 읽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안완식 지음/사계절/1만 8천원)

... 정기총회 이모저모 ...

협회장 표창패 수여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생약 살리기와 회세신장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산하회원 △김광호 경기도 화성군 사무소장 △이홍식 서울 강서구 공판장장 △정중화 부산 동구 사무소장 △주수득 경남 진주시 서부 사무소장 △임철 제주도 서귀포시 사무소장에게 각각 협회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감사보고에 이의 제기

○...한편 이날 이육용 이사는 "지난 해 협회 사무국 운영은 지금까지의 거품을 제거한 것으로 적정했다"는 허영감사의 감사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의 거품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감사때는 왜 거품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또 2억정도가 손해났음에도 적정운영이라고 한부분도 납득이 안간다"며 "이런 감사보고는 받을 수 없다. 감사를 재선출하던지 재감사를 받

자"며 목적을 높였다.

감사의 영향력 어디까지...

○...이에 대해 허영 감사는 "거품 제거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사무국직원 2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인 부분과 안기금중 사무국 운영비로 차용한 가수금 내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 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직선제로 뽑힌 감사지만 협회 내에서 현실적인 감사의 영향력과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반문함으로써 사실상 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음을 시사했다.

"부회장 직선제로 뽑자"

○...허영 감사는 또 보다 민주적인 협회운영을 위해 "5명의 부회장 중 2명을 대의원들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안과 "각 도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자동적으로 이사로 추대하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집행부의 운영방식에 대한 견해는 다음 총회때 감사보고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기금에서 회장수입금 공제

○...또 이육용 이사는 "안기금에서 회장수입금을

반제하는 것이 어떨지"를 제안. "기금 자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계속 빛지고 있을 것 없이 기금에서 공제하자"는 것. 이 건은 이사회에 위임되는 듯 했으나 총회에서 결정하지는 안이 제기됨에 따라 얼떨결에 통과되는 분위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실제 현금으로 활용 가능한 기금이 얼마 남지 않은 협회 현실에서 수입금 공제가 과연 적절한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예탁:1. 생약재배기술지도
-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원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기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